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김계완 시몬 (? -1802)

김계완 시몬은 한양의 양인 집안 출신으로 약방을 운영하며 살았다. 1791년 최필공 토마스에게 천주교 서적을 받아 읽고 교리에 감화되어 입교하였고, 최창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같은 해 신해박해 때 체포되었다가 배교하여 풀려났으나, 곧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신앙생활에 힘썼다. 1794년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입국하자 동료들과 함께 거처를 마련하는 데 애썼다.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 후 피신 생활을 이어갔으나, 부친이 체포되고 자신도 붙잡혔다. 그는 문초와 형벌 속에서도 “천주께 대한 효가 더 중요하다.”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형벌을 받아도 믿음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였다. 이후 형조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802년 서소문 밖 또는 새남터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그의 최후 진술은 이러하다.

“저는 무식한 백성으로 천주교에 깊이 빠져 여러 해 동안 신봉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형벌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실로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성화 김형주 작, 「복자 윤지중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성령 강림 대축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지혜 1,7 참조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2,1-11

화답송 시편 104(103), 1ㄱ-ㄴ과 24ㄱ-ㄴ, 29ㄴ-ㄷ, 30, 31과 34(◎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우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2독서 1코린 12,3ㄷ-7,12-13

부속가

오 소 서 성 령 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 버 지, 오 소 서 은총주님, 오 소 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 로 자 영 혼 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돌우소서.
 일할때에 휴 식 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 로 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음 요한 20,19-23

영성체송 사도 2,4,11 참조

모두 성령으로 가득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신약 성경은 왜 썼을까?”라는 질문으로 연재를 시작했지요. 요한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져 봅니다.

2026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표현이 너무 익숙하고, 예수님은 당연히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먼저 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이 땅에서 걸어 다니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십 년이 지났을 때도, 인간 나자렛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루카 복음 첫머리에 언급된 것과 같은 증인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따르는 무리에 관심을 갖게 된 이들은 그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고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요한 복음이 작성된 때는 이미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이 있었고 다른 복음서들도 있었습니다. 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놀라면서 “저분이 누구시기에?”라고 묻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은 그 첫 장에서부터, “저분이 누구시기에?”라고 묻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14)라고 선포합니다. 소문을 들었던 그분,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다고 하고 많은 무리가 따랐던 그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분이 하느님이시고, 한처음에 이미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

고 하느님이신 바로 그 말씀이 사람이 (원문 그대로는 “육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이 작성되던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있었던 이단들을 생각하면 이 말들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나자렛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으로만 여기고 신성을 부인하면서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가 그 위에 내려와서 얼마 동안 머물고 그 ‘그리스도’는 나중에 다시 떠나갔다거나, 아니면 그분이 정말로 인간이 아니었고 하느님이 다만 인간의 겉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는 여러 주장들에 맞서, 요한 복음 1장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밝혀 줍니다. 그분이 참으로 하느님이시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때가 아니라 한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참으로 사람이시라는 (그래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정말로 육이 되셨다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이 복음서 전체를 쓴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론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온갖 신학 논쟁이 떠오르지만, 이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교 신자인지 아니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종교를 따르고 있는지 분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스스로도 모르고 겉으로 티도 나지 않으면서 사실은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 복음 1장을 한 구절씩 읽으면서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을 모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



모든 신자의 성덕 실천

「교회헌장」 제41 항

「교회헌장」 제41항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덕 실천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공의회는 먼저 모든 신자가 세상과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나의 성덕”을 닦는다고 말합니다. 신자 모두는 각자가 받은 고유한 은총과 임무에 따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하느님을 흠송하며,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여 희망과 사랑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교들은 영원한 대사제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봉사 직무를 거룩하고 기쁘게 겸손하고 용기 있게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성화를 이룹니다. 그들은 성사의 은총으로 기도하고 설교하며 성찬례를 봉헌하고, 주교로서의 배려와 봉사를 통하여 완전한 사랑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의 모범으로 교회는 성덕으로 인도됩니다.

신부들도 영원하고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교의 임무를 나누어 받아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사제적 친교의 유대와 온갖 영적인 보화로 풍요로워져 모든 이에게 하느님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하느님 백성 전체와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찬례를 봉헌하며, 이를 통하여 더 높은 성덕에 올라 교회에 위안을 줍니다. 특별히 교구 사제는 자기 주교와 결합하고 협력하여 자기 성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봉사하는 부제들은 온갖 허물에서 자신을 깨끗이 지켜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신자들을 위해 좋은 것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님께 뵈며 주교의 감독 아래 봉사 직무를 준비하는 부제들은 그들의 고

귀한 선택에 맞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불타는 사랑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닦습니다. 성직자들과 함께 하느님께 선택된 평신도들은 사도적 활동에 헌신하여 주님의 성화 소명에 응답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와 부모는 충실한 사랑으로 평생 은총 안에서 서로 돕고, 자녀들을 교회의 교리와 복음적 덕행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사랑의 모범으로 서로 형제 관계를 이루고, 교회의 증인이요 협력자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배우자를 잃었거나 미혼인 사람들도 각자의 고유한 방법으로 교회의 성덕과 활동에 이바지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부모와 자녀들이 성덕을 기르는 곳이다.
기도를 함께 바치는 가족의 모습_가톨릭신문 제공

노동하는 이들은 인간다운 노동으로 자신을 완성하고 온 세상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할 때, 노동 그 이상의 높은 성덕에 이르게 됩니다. 고통 중에 있거나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세상 구원을 위하여 수난하신 그리스도와 특별하게 결합하여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참행복’ 선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신자가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한다면 자신의 생활과 직무 수행을 통해서 훌륭한 성덕에 이를 것입니다. 🍷

예수 세례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르 1,11) 성스러운 은총이 감싼 듯 화창한 날, 하느님의 목소리가 은근하게 울려 퍼집니다. 예수가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입니다.

예로부터 요르단강은 정화의 강으로, 구약의 열왕기 5장에서도 언급합니다. “엘리사는 심부름꾼을 시켜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새살이 돌아 깨끗해질 것입니다.””(2열왕 5,10) 또한 히브리어로 ‘요르단’은 “내려오는 강, 흘러내리는 강”의 의미로, 실제로 북쪽에서 가장 낮은 사해까지 흐르는 강으로, 성서적 맥락에서는 “경계를 넘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세례로 ‘정화’되어 ‘하느님의 자식’으로 거듭난다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물의 세례로 “새로운 단계”, 바로 진정한 ‘구세주’로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을 배경으로 파스텔톤의 은은한 화사함이 두드러지는 그림을 그린 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기를 대표하는 거장,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Piero della Francesca, c.1415-1492). 성숙기인 40세경, 그의 고향마을 보르고 산 세폴크로(Borgo San Sepolcro) 성당을 그린 작품으로 오늘날에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화면 뒤 배경으로 등장하는 마을이 바로 그의 고향마을 보르고입니다. 르네상스의 과학적 사고에 심취한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그림은 엄격한 수학적 계산에 의해 균형 잡히고 절제된 사물의 표현과 전체 화면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의 화풍에서는 고전적이면서도 조각적인 볼륨감과 견고함이 느껴지는데, 경직된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은 고전적 기초를 기반으로 서정적



‘예수 세례’, 1450년경,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c.1415-1492), 포플라 나무에 에그템페라, 런던 내셔널 갤러리, 영국

인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화면 연출 덕분입니다. <예술가 평전>의 저자 바사리(G. Vasari) 역시 그를 “새롭고 부드러운 화풍을 구사하는 화가”로 기록하고 있지요.

화면 중앙에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나무 한 그루와 같이 경건한 자세로 두 손 모아 기도드리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날개를 활짝 편 비둘기 형상의 성령이 임해 있고, 옆의 잎이 무성한 나무는 예수가 바로 ‘생명의 나무’임을 넌지시 알려줍니다. 여기 순백으로 빛나는 성령님의 모습이 고결하고 눈부십니다. 일반적으로 세례받는 예수는 강에 하반신을 담그거나, 무릎까지 담근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피에로는 강이 시작하는 지점의 마른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예수를 담았습니다. 이는 천상의 기쁨이 넘치는 고결한 자태의 예수, 곧 ‘죄 없이 깨끗하신’ 거룩하신 분의 모습 전체를 보여주기 위한 탁월한 연출입니다. 그의 옆에 사뿐히 한 발을 뻗 세례자 요한이 조심스레 세례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좌측의 세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바로 천상에서 내려온 천사들, ‘예수 세례’의 증인이자 시종드는 자들로, 은근히 아브라함의 세 천사를 연상시켜주며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구세주임을 말해줍니다. 여기 또 재미난 디테일은 우측 중경에 열심히 걸뚝을 벗는 남성의 모습입니다. 예수 다음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현장감을 주는 동시에 미소를 짓게 하는 매력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요르단강에 환상적으로 비치는 나무,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은 몽환적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생명의 나무’는 지상과 천상계를 하나로 일치시켜 줍니다. ☺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5/29(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4층 소성전
주제: 제주고리예의 살아계신 성령
강사: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예수회 호주 관구)
문의: 010-2127-0032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4박5일: 6/13(토)~17(수)
예수마음기도 8박9일: 6/13(토)~21(주일)
영신수련 4박5일: 6/13(토)~17(수)
영신수련 8박9일: 6/13(토)~21(주일)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운정)
문의: 010-9099-2337, www.jesumaum.org

2026 전국 젊은이 성령축제

일시: 5/25(월) 9시~17시
장소: 부산교구 주교좌 중앙 성당
대상: 청년 누구나 / 회비: 1만원(점심 제공)
문의: 010-5515-5548

초정성령회관 성령의은사 열매 9주간 금요철야

일시: 6월~8월 매주(금) 20시~(토) 1:30
강사: 윤창호 신부, 고영민 회장 외 유명강사
장소: 청주 초정성령회관(서틀버스운행)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안내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5/29(금)~31(주일)
신약완독: 6/18(목)~21(주일)
성경완독: 7/24(금)~8/1(토), 8/14(금)~22(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 이시돌 목장에서 쉬고 함께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공동체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7/1(수)~4(토)
한라산철쭉, 자연순례: 6/5(금)~7(주일)
6/13(토)~15(월), 6/20(토)~22(월)
차귀도 포함 자연순례: 6/23(화)~25(목)
제주의 여름 우도섬포함: 7/18(토)~20(월)
7/24(금)~27(월), 7/29(수)~31(금)
문의: 064-796-4182, 02-773-1455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가톨릭회관 7층
강사: 5/26 이상기 회장, 6/2 이상윤 신부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수국길: 6/19(금)~21(주일)
우도: 7/24(금)~26(주일)
마라도 순례: 7/3(금)~5(주일), 7/10(금)~12(주일),
8/21(금)~23(주일)
한라산 숲길: 7/17(금)~19(주일)
추자도 성지순례: 6/4(목)~7(주일), 6/8(월)~11(목),
9/4(금)~7(월), 9/11(금)~14(월),
10/31(토)~11/3(화)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교육 · 모 집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zoom 성경통독

일시: 매주(화) 20시~21시
대상: 20~40세 미혼 여성
문의: 010-9353-1773

어머니·아버지학교 온라인(ZOOM)교육

일시: 6/26~7/17 매주(금) 19:30~21:30 (4주)
주제: 자녀에게 신앙이어주기
주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햇살사목센터
강사: 조재연 신부, 천진아 연구원, 이세라 연구원
접수: 6/19까지 / 회비: 4만원
문의: 02-744-0840

※ 사전모임(6/24(수) 20시~20:45)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영성-철학상담: '삶으로서의 철학함'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가톨릭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접수: 5/20(수)~6/5(금)
전형: 6/20(토) / 문의: 02-705-8668~9

덕정성당 성가대 교중 반주자 모집

일시: (주일) 교중미사 전/ 교중미사 후
자격: 성가대 반주 경험자나 전공자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제출
접수: pen356@uca.or.kr 덕정 성당 사무실
※ 소정의 봉사료 지급

평내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자격: 성가대 지휘 경험자 또는 관련 전공자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 마감: 6/6(토)까지
연습: 매주(목) 20시~22시
접수: 031-595-8751 평내 성당 사무실
기타: 소정의 봉사료 지급/ 서류 반환없음
※ 서류 심사 후 면접 개별 통보

(주)평화누리 장례지도사 교육원 교육생 모집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중심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
문의: 02-2258-8480, 8437

성가발성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 시스띠나음악원: 매주(금) 11시
문의: 010-9842-8818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edoran

피에타스 가톨릭시니어합창단 단원 모집

성가 발성지도 및 교구활동, 음악미사 봉헌
연습: 매주(수) 19:40, 정발산 성당
문의: 010-3330-3725

주교좌 의정부 성당 글로리아 청년성가대 지휘자 모집

대상: 20~40대 가톨릭 신자로 음악 전공자(합창 지휘 전공 혹은 그에 준하는 경력자 우대), 가톨릭 전례에 대한 기본 지식 소양을 갖춘 자
미사시간: (주일) 18시
마감: 6/15(월) 18시까지
문의: 010-8865-4251 민경환 마리오
※ 세부 내용 교구/본당 홈페이지 참조

2026년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채용

접수: 6/7(주일)까지
분야: 영상PD(육아휴직 대체인력)
문의: 02-2270-2116 / 채용홈페이지 참조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성심수녀회	6/3(수) 19:30~21:30	역곡성심수녀회 분원	010-5303-1956(문자)
	사랑의 씨앗 수녀회	5/31(주일) 10시~15시	행주 성당	010-5528-3217

서울대교구 한국종독연구재단 카프성모병원 자원봉사

분야: 재능기부(전례반주, 요리, 독서, 명상 등) 및 기부물품 판매 업무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거리
문의: 031-810-9033 / 요일, 시간 협의 가능

안내 · 기타 ▶▶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성지순례

8/3(월)~11(화) 아시시에서 일주일(KE)
8/6(목)~17(월) 성모발현지(KE)
8/13(목)~17(월) 베트남 하노이와 북부(KE)
8/17(월)~27(목) 이탈리아 돌로미티(KE)
9/21(월)~29(화) 이탈리아 중부소도시(KE)
문의: 1551-1053, www.cpbctour.co.kr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8/11(화) 유럽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12일)
8/13(목)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12일)
9/7(월) 산티아고 117km 도보 순례(12일)
9/8(화) 이탈리아 (전대사) 특별 순례(11일)
10/12(월) 체코, 독일, 폴란드, 헝가리(12일)
10/14(수) 이탈리아, 프랑스 메주고리에(12일)
10/19(월) 튀르키예, 그리스(12일)
문의: 02-319-2533 가톨릭회관 619호
※ 홈페이지 www.catholictravel.co.kr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성지순례 모집

7월 / 캐나다 성모성지(9박10일)
11월 / 멕시코&칸쿤 성모성지(10박11일)
문의: 010-5735-4578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입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라파엘여행사 해외성지순례

10/2(금) 다낭 성모발현지(5일)
10/14(수) 유럽4개국 성모발현지(12일)
10/19(월) 스페인남부, 포르투갈(12일)
10/21(수) 메주고리에 순례(11일, 399만원)
10/28(수) 발칸, 메주고리에(11일, 495만원)
11/9(월) 알프스와 중부유럽수도원(12일)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제28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캐나다: Toronto대학 영어캠프,
미동부 및 MIT+IVY리그 대학탐방
미국: UCLA 영어캠프, 미서부 투어 및
명문대학 탐방
영국: Oxford대학 영어캠프, 서유럽 3개국
(프랑스, 독일, 체코)
문의: 02-734-0999, cpbccamp.com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실버&성인 필리핀 영어연수
단체출국: 6/27(토), 7/24(금), 8/29(토)
지역: 필리핀 바콜로드
내용: 주중영어연수, 주말봉사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053-593-1273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4일

9/17(목) / 비용: 599만원 (+2,500유로)
루르드 3박, 파티마 2박 포함 / 가톨릭 트래블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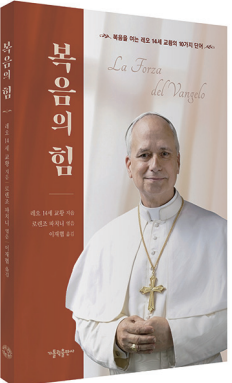
7/16(목)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69만원-제한절 연휴)
8/12(수) 김대건. 최양업신부님과 안중근의사 발자취
(하열빈, 장춘, 단둥, 차쿠, 대련-5일, 180만원)
9/24(목)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69만원-추석)
10/12(월) 발칸3국 및 메주고리에(10일, 498만원)
10/26(월)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640만원)
11/13(금) 홍콩, 마카오(4일, 18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일본 성지순례

10/14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 4일
대한항공 탑승, 지도사제 동행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김명윤 베네딕도

DIocese of Uijeongbu

신간



복음을 여는
레오 14세 교황의 10가지 단어

복음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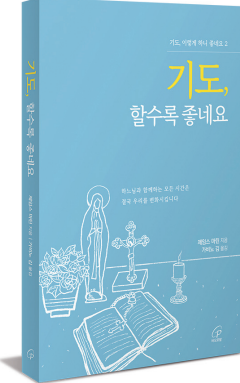
레오 14세 교황 | 가톨릭출판사
164면 | 18,000원
문의 | 02-6365-1850

전쟁과 분열의 시대, 레오 14세 교황이 건네는 복음의 힘

전쟁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더 깊고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역사는 희생자를 늘린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심고 가꾼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은 '적'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귀 기울이고 대화를 나누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폭력적인 서사가 만들어 내는 선악의 이분법, 세상을 단순히 편 가르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본문 중에서

신간



기도, 할수록 좋네요

제임스 마틴 | 가비노 김 | 바오로딸
240면 | 13,000원
문의 | 031-850-1533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숨김없이 마음을 드러내 보이길 바라십니다. 정말 가까운 친구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듯이, 하느님께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26쪽)

기도하는 중에 문득 떠오르거나 의식하게 되는 생각(깨달음), 감정, 기억, 이미지, 열망, 몸의 느낌, 그리고 때로는 어떤 단어나 구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하느님의 간절한 바람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38쪽)

평화와 화합

제13회 삶의향기
원고 공모전



04
·
19

DIocese of Uijeongbu

07
·
26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마태 5,9)

의정부교구 신자를 대상으로 신앙 체험 수기를 공모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하느님의 은총으로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 은총을 체험하신 여러분의 소중한 신앙 체험을 나누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 수필, 편지글 200자 원고지 기준 7매 이내
(한글 프로그램 작성 시 A4 1장 이내, 11pt, 줄 간격 160%)
※ 성명, 세레명, 본당,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이메일 gongmo@uca.or.kr
우 편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61 천주교의정부교구청 4층 홍보국


기간 4/19(주일) ~ 7/26(주일)

발표 8/16자 주보와 교구 홈페이지 ※ 수상자에게는 개별통지 합니다.

시상 최우수(1편) 50만원 / 우수(2편) 각 30만원 / 장려(3편) 각 20만원
※ 참가 작품 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자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문의 031-850-1433 홍보국

www.uca.or.kr

 천주교의정부교구

PAX ET CONCORDIA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주 임 신 부 : 김승한 요셉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성모봉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요일	19:00	월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화	19:00	유아세례
성시간	매월 첫 금요일 미사 후	수, 목, 금	11:00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 지 / 단 체

- 6월 병자 영성체
일 시: 6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6월 성시간
일 시: 6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6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6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 본당의 날 성지 순례
일 시: 5월 31일 주일 오전 9시 출발
장 소: 춘천교구 포천 화현 이벽 성지
버스 출발 장소: 가맛골 식당 주차장
※ 5월 31일 성지 순례 당일에는 행주 성당 미사는 오전 11시 교중 미사 한 번만 봉헌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주일 2차 헌금
다음 주일에는 청소년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5월 성모 성월 묵주 기도
5월 한 달 동안 매일 미사 30분 전에 성당에서 묵주 기도를 봉헌합니다. 조금 일찍 오시어 묵주 기도 봉헌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수살이공동체 주관 배동·제자 교육
일 시: 6월 26일(금) - 28일(주일) 2박 3일
장 소: 끈벚뚝알프란치스코 수도원 피정의 집
주 제: 소비사회에서 그리스도 따르기
예수님의 삶에서 찾은 자유, 기쁨, 투신
강 의: 최재영 신부님
회 비: 18만원
문 의: 예수살이 공동체 사무국
010-6750-2144, 02-3144-2144
가톨릭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고백하고, 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정성(5/11 - 5/17)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5건	800,000원
주일헌금	804,000원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감사헌금
- 이동준 200,000원 구바울리나 100,000원
- 김영란 100,000원

